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Men's Participation of the Market Work and the Housework

- Focu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in the Newspaper Article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강 사 조 성 은**

여주대학 사회복지과

부교수 정 지 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소 영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ungshin Univ.

Lecturer : Cho, Seong-Eun

Dept. of Social Welfare, Yeojoo College

Professor assistant : Jeong, Jee-Young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Chief researcher : Yoon, So-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bor division between men's housework and market work and to research the change of men's contribution to housework. And it was also examined what kinds of valuables work on a change in men's market work and housework. The information about men's change in the labor division was collected from the biggest 5 news papers in Korea for last five years for this study. And either men's new participation trend to household work did. Words searched for this study were men, labor, family, home, housewife, work, household work, father etc. Korean men have experienced a overloaded breadwinner role and have worked most in the world since 1960s. But Korean men's working time was continuously decreased a little every year. As Korean Companies had fired many worker during IMF economic crisis period, Korean men had to work more than before because of decreased fellows and they should have concentrated on their work at the sacrifice of private life and family-sharing time. On the other hand, some men were started to participate to do housework as a results of long-unemployment and early retirement after this periods. 5 day working system be in forced gradually since 2003 especially make men come back home and interest on housework. So Korean men's housework particip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by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ex-equitable politics such as 5 day working system and men's suspension regime for baby care. father's increased participation to children education and care, men's new family-oriented life style, dual-sexuality education system, and socially changed perception to husband housemaker. These interrelated trends demands us to shape a new labor division pattern in the family that make change the breadwinner/homemaker conception by the gender role. Now, all of family, men, women, and children have to join housework. It would help women, men, and all families make more human and equitable relationship.

▲주요어(Key Words) : 남성의 노동(labor of male), 가사노동(housework), 시장노동(market work), 양성성(dual-sexuality), 남성주부(husband housemaker)

* 본 연구는 가정관리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조성은 (E-mail : seongeunc@gmail.com)

Ⅰ. 서 론

산업사회 이후, 성에 따른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 무보수로 행해지는 '가사노동'을, 남성은 가정 밖에서 보수를 받고 수행되는 '시장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성별 노동 분리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에서 함께 생계를 위해 일했던 남녀 성인 중 남자가 먼저 시장노동으로 나가면서 생겨난 역할 분리로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과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정시켰고, 가족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분화 시켰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이 중시되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새로이 대두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고부가가치가 중심적인 가치가 되면서, 탈공동체, 다원화, 사회 조직체제의 변화, 분산형 체제, 경제의 소프트화, 물건에 대한 사용과 소유의 일시성, 창조력에 대한 투자증대와 다양성, 산업의 정보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이 특징으로 대두되었다(문숙재외, 2003). 따라서 노동의 형태에 있어서도 여성은 가사노동, 남성은 시장노동이라는 성에 따른 이분화된 사고보다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성역할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급격한 증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천 304만 8천명 가운데 여성 취업자는 970만 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의 비율은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여성의 비중은 11.2%로 20대 남성(8.4%)과 50대 남성(9.6%)보다 높아 전체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40대 여성(연합뉴스, 2005.10.24)이라는 통계청의 결과를 통해서도 산업화 시대의 성역할분리가 시장노동에서는 더 이상 고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성과 노동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남성과 그들의 가사노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통계청(2005)의 「2004 생활시간조사」결과에 의하면, 2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평일 가사노동에 평균 31분, 수입노동에 5시간 52분을 소요하는 반면, 취업한 주부의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총합은 평균 8시간 59분으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물론 성인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시간과 참여비율이 1999년 각각 29분과 44%에서 5년 후에는 31분과 45.8%로 증가하여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러한 미세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양적연구로만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양적인 측면에서 규명하지 못했던 남성 가사노동의 변화 내용, 또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위해 양적 방법 이외의 새로운 연구 방법, 즉 질적 연구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양에서 나타난 남성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 노동 분배의 새로운 움직임들을 찾아보고, 양적연구(가사노동 시간량 측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영향요인을 유추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의 시도를 통해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서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남성의 시장노동 부담과 갈등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0명 중 1명 정도 만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 일과 직장생활(40%)을 꼽고 있다(조선일보, 2005년 7월 14일자). 이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가부장적 특성의 결합이 우리사회에서 조직논리의 근간을 이루어, 남성들이 조직에서의 경쟁을 내면화하고 조직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들이 시장노동에서 보다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짐과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특혜와 부담 속에서 남성들의 삶은 자신의 사적인 생활이나 자율성의 확보보다는 조직인으로서의 삶에 길들여져 '회사 인간' 또는 '직장 인간'으로 자신을 가정과 가사노동에서 배제시켜 왔다(손승영, 1997).

1960년대 이후 반세기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일 중심 사회'로 변모하면서, 양적 팽창과 '성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정부의 경제성장추구 정책에 의해 남성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책임을 지우면서 개인의 생활이나 사적 영역이 경시되었다.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고 중요시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정생활 속에 강하게 작용되었다. 집단주의적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배하고 '삶의 질' 보다 '생산성 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개인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일 중독' 현상이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논리는 가장인 남성에게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으로 여겨지게 만들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만이 가정에서도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남성들은 생활시간의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 능력을 유지하는데 할애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말 우리나라에 경제적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까지도 계속되어, 남성들의 직장노동 부담을

가속화시켰으며, 더불어 우리사회에 많은 가족 문제를 발생시켰다.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대량 감원과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유발하였으며 실직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사회이후 계속된 남성들의 생계유지자 역할과 가정 내의 도구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경제력을 상실한 남성들은 가정에서의 권위와 위치 상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노동에 남아있는 남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남성들은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직장생활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조직의 생산성 향상 정책으로 늘어난 과중한 업무를 기꺼이 감내하도록 몰아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별 노동 분배는 더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에만 전념했던 남성은 일에서 물러났을 때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할 때 다른 성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적 편견을 견뎌야만 한다. 최근 등장했던 남성주부와 남자 파출부의 경우에도 오랜 실직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여성 영역의 직업에 도전하였으나 가족과 주위의 시선과 편견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채옥희, 2004). 양성적 성역할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실업으로 성역할을 바꾸어 담당하는 남성 전업주부들의 경우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상황임을 볼 때 노동의 성역할 분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변화시켜 가야할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기혼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변화나 계획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남성들은 가정이나 개인적인 정서, 지지 등의 사적인 측면을 공적인 영역의 일을 위해 희생해 왔다. 그 한 증거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현황이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자 중 남성이 71.4%를 차지하여 여성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취직실패나 실직중 염세, 비관에 의한 것(44.9%)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5년 9월 20일자). 그 결과 산업사회에서 생계노동자 역할만을 담당했던 남성들은 공적 영역에서와는 달리 사적 영역인 가정생활에서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은퇴 후 남성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無爲)와 심리적 고독으로 나타나고 있고(현외성 외, 2001), 늘어난 가정에서의 생활시간 동안 배우자 및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나(모선희, 1999; 최순남, 2000) 소외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가정적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의 노년자살이 전체 자살의 30%에 해당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남성들 또한 성별을 근거로 한 노동 분담에 의해 가정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살의 원인도 자신의 처지나 신병을 비관하는 경우가 전체 자살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2.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저항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량이 보여준 불변성의 결과는 가사노동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남성을 제외시키거나 소극적으로 다루게 만들었다. 즉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가사노동의 보조자나 분담자의 측면에서 간접적으로만 다루어졌으며 이는 가정 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나 의무감 차원이나 생식자로서의 남성의 정체감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와서야 남성의 가정 내 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보다 가사노동에 고착화 되어 있는 성별 노동 분리의 분담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으로(조성은, 1998), 부모와 형제, 고용인이 주부와 가사노동을 얼마나 나누어 하는가의 한 부분으로 남성이 다루어질 만큼 남성은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음이 연구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1980년대에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와 생활의 질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연구들(이정수, 1984; 서동인, 1985; 이정수외, 1985; 윤명희, 1985)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는 남성을 가사노동의 일부인 양육과 접목시킨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손인아, 1983; 권연희, 1986; 김영숙, 1987; 김희철, 1988)가 주를 이루었고, 1988년 이후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맞벌이 부부의 역할 수행과 기대,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간의 가족역할 구조 등에 관한 연구(송혜림, 1988; 안희순, 1988; 이성희 외, 1989)가 이루어지면서 남편의 가사노동 역할이 부부 역할 구조 중 한 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조성은, 1998에서 재인용).

1990년대 연구는 취업주부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로 주부의 취업 여부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에 관심을 두고 있다(김정자, 1990; 이연숙외, 1991; 송영숙, 1992; 박주희, 1993; 이미숙, 1995). 이는 주

로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간의 가사노동 시간량의 차이로, 차이 검증을 위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나 시간량이 측정되었으며, 비로소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가사노동 분담 연구의 일부나 양육으로서가 아닌 가사노동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조성은, 1998에서 재인용). 즉 이 시기의 연구는 여성의 취업으로 남성의 생계 부양자 역할이 아내와 공유됨에 따라 남성의 가정내 역할변화를 살피고 있으나 여성취업으로 인한 남성의 가사노동 변화 양상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이 시기에는 여성의 취업 자체만으로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량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들은 남성들의 퇴직과 가정으로의 복귀로 인한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남성의 노동을 파악하거나(성미애 외, 2002; 김명자, 2003), 다양한 가족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변화와 노동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윤소영, 2002; 채옥희, 2002; 문숙재 외, 2003; 기은광 외, 2003; 채 로 외, 2004) 또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감소된 노동 시간을 가사노동이나 여가시간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윤소영, 2003).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결같이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들이 시장노동에만 치우쳐 있으며 가사노동 참여에는 계속 저항을 하고 있어 노동 분배 시간의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근거 있는 이유는 남성들이 자신을 가족의 생계부양자 역할에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맞벌이를 하는 남성도 아내가 생계부양의 역할을 같이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한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홍은정, 1995)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이때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저항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은 성역할 관념 가설이다. 성역할 관념 가설은 남성들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행동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다른 사회문화적 기관의 사회화, 즉 학습을 통해 습득된 것이라고 보는 가설이다. 즉 이 가설에 의하면 배우자 중 하나 또는 둘 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수록 부인이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과의 공유와 협력, 평등한 관계보다는 이제까지처럼 아내가 가사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길 바라며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하게 된다. 즉 남자라는 이유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가사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할 상황을 회피하려는 사람, 하기 싫지만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사노동을 하고는 있으나 상황만 개선되면 가사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조성은, 1998),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여성이 생계유지자 역할을 함께 공유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사노동에서 자유롭고 싶어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위에서 언급한 가사노동 기술의 절대적 부족,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개인적 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 등이 해당되며,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성별계층화와 이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경제구조이다. 가부장제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이것은 다시 가부장적인 사고를 통해 강화됨으로써 남성들이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오히려 오늘날에는 장해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양성공유를 유도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남성들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그 방향을 예측해 보고자 남성들의 이 두가지 영역 노동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내용상의 질적인 변화를 찾고자 하였다. 이때 노동변화에 대해 수량적 자료로 파악되기 어려운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선택된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일간지[1] 로서 '남성', '노동', '가족', '가정', '주부', '일', '가사노동', '아버지' 등의 단어를 단독 또는 조합해서 찾아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각 신문별로 검색 가능한 기간이 다양했으므로,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신문의 검색가능기간에 따라 각 신문별로 검색된 기간이 다양하였다. 이때 남성의 시장노동 분배와 사회경제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킨 IMF를 전후한 시장노동 변화, 그리고 시장노동 변화 후에 나타나고 있는 가사노동상의 새로운 양상이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장노동변화는 1990년대부터, 그리고 IMF로 인한 남성의 시장노동 변화 후 그 영향이 나타났는지를 보기 위하여 가사노동 변화는 2000년대 이후 검색 가능한 신문기사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때 조선일보만이 유료기사를 통해 1990년대 기사 검색이 가능했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된 조선일보와 노동관련 기사가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겨레신문 등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5대 일간지를 선택하였다.

으므로 시장노동을 분석하는 자료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조선일보 기사만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사노동변화를 찾기 위한 기사와 2000년 이후의 남성의 시장노동 관련 기사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를 대상으로 5대 일간지 기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2000년도 이후의 기사를 대상으로 본 결과 남성의 일 또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통계수치, 경향 등은 연합기사를 통해 5대 신문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기사를 실은 날짜나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제어로 검색하여 나타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료를 분석할 때 신문별, 주제별, 빈도별 구별을 하지 않았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시장노동에서 나타난 남성의 변화 : IMF를 기점으로

196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남성들의 시장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으며 1980년 이후에도 여성들은 단순 노동집약적인 의류, 봉제 등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후기 산업화를 대표하는 산업이 대부분 남성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취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IMF는 남성의 시장노동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IMF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후의 남성의 시장노동 양상을 살펴보려 할 때 1980년대 이후 시장노동 형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 진다. 우선 고도의 경제성장기인 198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전까지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노동 부담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던 제 1 시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던 노동시간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형태의 변화로 직업안정성이 감소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제 2 시기,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감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주 5일근무제의 시작과 함께 노동시간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 3시기이다.

1) 제 1시기

이 시기는 1980년 고도 성장기에서 1997년 9월 외환위기 발생 전까지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남성의 주당근로시간은 세계 8번째로 직장노동의 부담이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었으며, 꾸준히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노동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노동량이 많아서 과로사와 직업병을 유발하던 시기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95년을 기준으로 세계 70개국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은 49.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6년 54.7시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나,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고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41.5시간보다 20% 정도 많은 것이다(조선일보 1997년 5월 30일자).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과 업무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운동부족과 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원인이 된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 질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연간 5백 명이상이 되었고 이 중 3/4이상(379명, 75.3%)이 순환기계통의 성인병으로 인한 과로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중 11%에 해당된다고 한다(조선일보 1996년 3월 15일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과 4년 사이에 질병 유소견자와 질병 보유율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조선일보 1996년 5월 17일자), 질병사한 전체 근로자 중 남성 404명, 여성 37명, 미상 4명으로 남성이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85년부터 94년까지 한국 남성들의 추락이나 익사,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조선일보 1996년 9월 11일자).

2) 제 2시기

이 시기는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0월부터 2001년 사이의 격동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10월부터 1998년까지 단기적으로 줄어들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경기악화가 심화된 1999년부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재정난에 처한 대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이 늘어나고 초과근무가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취업자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지난 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96년에 비해 일용직(8.7%)과 임시직(5.2%)이 늘어나 36시간미만의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고(조선일보 1998년 2월 12일자), 또한 외환위기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조선일보 1998년 7월 10일자)한 결과이다. 이러한 조기퇴직, 명예퇴직에 의한 실직의 부담은 직장노동에 인생의 승패를 거는 한국 남성 노동자들에게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외환위기 전 96년도에 11%에 달하던 과로사의 비율이 97년에는 18.3%로 증가하였다(조선일보 1997년 11월 5일자).

그러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9년부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까지는 다시 근로시간이 증가

하게 되는데, 이는 구조조정으로 나간 사람들의 몫까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99년 12월 9일자). 한국의 직장인들은 '회사형 인간'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쓰러져가는 기업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회사 내에서 조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한다는 풍토가 강화되어 또 다시 일중독자로 변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산재환자의 자살이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한 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났다(조선일보 2000년 10월 24일자). 뉴욕타임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시기에 다시 증가된 업무량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던 2001년에도 조사대상 31개국 중에서 평균 주당 55.1시간으로, 프랑스 40.3시간, 이탈리아 40.5시간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조선일보 2001년 6월 11일자).

3) 제 3시기

이 시기는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근무시간단축합의문의 영향으로 2002년에서부터 2005년 현재까지 남성들의 근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활시간 내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연간 근무시간단축뿐 아니라 주 5일근무제의 실시로 노동구조의 변화와 노동시간의 감소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줄어든 노동시간이 여가와 취미활동 및 휴식과 가사노동 시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된 시기이다.

현재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근로시간의 감소와 임금상승 효과(조선일보 2003년 3월 5일자, 조선일보 2003년 8월 24일자), 기업의 인건비부담 해결을 위한 임시직·일용직 근로 형태 선호(조선일보 2005년 4월 20일자), 노동시간의 여가 및 취미시간으로의 대체(조선일보 2005년 5월 26일자), 더 많은 노동시간으로의 이행과 가족의 불안정성 문제 야기(한겨레, 2003년3월 27일자) 등 노동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효과나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 시행단계인 현재보다 정착된 이후에나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로 인해 노동 불안정감이 높은 상황에서 일어난 대량해고와 맞물린 주 5일제는 줄어든 인원이 줄어든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역할 과중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주 5일제 근무로 늘어난 자유 시간, 유동근무시간제의 이용 증가, 대량해고와 권고사직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추가근무 증가, 일용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시장노동구조의 불안감 등은 주5일제의 시행이 여가시간,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앞당겨진 퇴직연령과 늘어난 수명, 짧아진 근속기간 등이 시장노동에 머물러 있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가와 가족시간보다 사회적 지위의 유지와 이윤추구를 우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 주 5일 근무제는 아직 단계적 시행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즉 한국방송과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자료(1985-1999)를 토대로 분석한 '직업별 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확대와 경영직, 전문직 종사자의 주말 노동시간의 증가를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정상근무 노동자 비중은 계속 줄고, 반대로 밤, 새벽, 주말 노동이 뚜렷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밤 9시에 일하는 노동자는 6.7%(85년)에서 14.2%(99년)로, 밤 12시 노동자는 1.7%(85년)에서 5.2%(99년)로, 새벽 2시 노동자는 1.1%(85년)에서 3.2%(99년)로 늘었다. 반면 낮 11시에 일하는 노동자는 71%(85년)에서 62.3%(99년)로 줄었다. 특히 사무기술직과 경영직, 전문직을 중심으로 토, 일요일 노동시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의 토요일 노동시간은 5시간 58분(85년)에서 6시간 37분(99년)으로, 일요일 노동은 3시간 22분(85년)에서 4시간(99년)으로 늘었다(한겨레, 2003년 3월 27일자).

따라서 주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사회적 임금과 근무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늘어나는 생활비용과 여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고, 노동 시간대가 다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일용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한국도 미국처럼 여가가 오히려 줄어들어 경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남성의 가사노동의 새로운 양상들

남성의 가사노동은 선행 연구 결과 시간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식과 수행 상에서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1970년대 이전에는 가사노동의 연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같은 외적 요인과는 달리 남성들 자신이 시장노동에서 대량해고와 권고사직, 조기은퇴 등, 직장의 불안정도 증가 등을 경험한 이후 가사노동 참여에 있어 시간량의 증가는 아닐지라도 인식과 수행면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신문 기사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사에서 새롭게 나타난 내용이라고 해서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또는 변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양상의 등장 자체는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기사

내용에서 나타난 남성 가사노동상의 새로운 양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남녀평등적 정책시행의 효과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간 노동분배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정책적 요인들은 주5일 근무제와 남성의 육아휴직제와 같은 국가주도적인 남녀평등적 정책들이다.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7월 29일에 통과되었으며, 2004년 7월부터 공공, 금융, 보험 및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시행되었고, 2005년 10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이것은 기업 규모에 EK라 2008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근로자 2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11년 대통령령으로 주5일제 도입 시기를 정하게 되므로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은 단계적으로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간 노동분배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정책 중 하나이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1999년 12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0년부터 일부 공무원들에게 1년 한도 내에서 육아 휴직이 허용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다(조선일보, 2003년 1월 23일).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란 갓난아이를 가진 부모가 오전 또는 오후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것으로 현행법상 맞벌이 하는 아내가 육아휴직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 누구나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은 시행자체만으로도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가능시간과 가사노동 경험 기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남성의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폄하적 저항감을 줄이고 가정생활을 위해 함께 해나가야 할 일로의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좋은 비교 사례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남녀평등적인 정책들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직장에서나 집에서 함께 일하게 하기 위한 평등한 노동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같은 가사노동경감 조치들을 꾸준히 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여성들은 우리나라보다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성들이 가사에 보다 편견 없이 참여하고 있다. 1997년 3월 15일자 '중국청년보'의 보도에 따르면 개혁 개방과 함께 주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이와 함께 독립심, 자주의식 등이 증대되어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남자라고 응답한 남자의 수가 67.4%인데 비해, 여자라고 응답한 여자의 수는 81.5%에 달할 정도로(대한상공회의소, 1997) 생계노동자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인 남녀평등적 노동정책이 시행될 때 같은 결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정책 시행만으로 시장노동을 하던 남성을 가사노동으로 이동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시행의 경우와 같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가사노동인식과 행동 변화를 향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 점진적 변화에 대한 인지

우리가 변화의 차이를 감지하기엔 너무 느린 변화로 인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은 언제나 제자리인양 생각되고 있다. 또한 통계적 수치에서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량은 늘 변화가 미약해서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2000년도 이후 신문에 인용된 그들의 증언을 보면 북한 남성과 남한 남성의 큰 차이가 단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중앙일보, 2004.1.18), 그들 중 상당수가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사회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북한 출신 남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별거나 이혼을 택하고 있다. 남성우위의 봉건적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북한 남편들은 마치 60년대 남한의 남편들과 같은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설명이다(중앙일보, 2004년 11월 25일자). 이것은 1950년 종전협정 이후 서구적 민주주의 사상이 빠르게 도입된 남한의 탈가부장제가 북한보다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 남성을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상하게 집안일도 잘 거들어주는 남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정에 대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던 단일민족임을 기억할 때 기존의 가사노동 연구에서 나타날 만큼의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남한의 남성이 북한의 남성보다 좀 더 가정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변화했다는 데 대한 인식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지속적인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가속화시킨다면 앞으로 남성의 노동분배는 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경험의 증가

최근 들어 남성들의 가사노동 경험과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즉, 자신의 좋아하는 영역과 싫어하는 영역들에 대한 기사(조선일보 2005년 5월 1일자)와 명절 준비 시의 남편들의 가사돕기(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자)등이 대표적이다.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과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가 지난 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명절 준비에 남성들이 5-6년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1%였다. 이어 다소 적극 참여 35%, 매우 적극 참여 16%, 더욱 부진 7%순으로(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자), 명절 노동에의 참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절 때의 가사보조가 평상시에도 가사일을 한다는 것으로 비약해서 해석할 수 는 없지만 명절 때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평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기대된다. 즉 가사노동에 대한 경험이 있을수록 가사노동 참여가 더 쉽게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조성은, 1998)를 통해 추론하여 볼 때, 새롭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서울과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기혼 남성 700명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제일기획의 연구에서도 가사노동 참여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평균 결혼 연수가 6.52년이고 평균 연령이 34.04세인 대졸 이상 사무직 종사자 140명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가정에서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질문에 집안 청소 72.1%, 설거지 56.4%, 이불 개기 42.9%, 세탁 35.7%, 화장실 청소 35.0%, 식사준비 33.6% 등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동아일보 2002년 10월 31일자). 이 같은 결과는 "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남성들도 가사를 당연히 공유해야 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있기 때문이라며 현대백화점 유통연구소 김인호 소장은 "최근 백화점들이 남성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가족 이벤트를 늘리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조선일보, 2005년 5월 1일자)이라고 한 조사와 같은 맥락이다.

4) 남성주부의 증가와 인식의 변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성의 노동과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기사들은 가사휴가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이용해 남성들이 육아나 가사일을 전담했던 경험과 제언을 다룬 것과(중앙일보 2005년 7월 25일자), 가사 전담 남성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주부라는 것이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시도였으며, 어렵고 드문 일이지만 남성들의 새로운 시도가 또 하나의 신조류로 나타난 것이다.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7월 461만 명으로 이들 중 '가사' 사유가 11만1천명에 이르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4천명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수치이지만 2003년의 7만3천명보다는 84%나 늘어난 수치(한겨레신문, 2005년 9월 12일자)로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주부의 수적 증가와 함께 남성주부의 가사노동 전담 에 대한 의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인남녀 1810명을 대상으로 한 채용정보업체 커리어다음(www.career.co.kr)의 조사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주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유 중에는 '남편이 가사일에 소질과 흥미가 있다면'이 33.9%로 가장 많았고 '부인이 가계경제를 책임진다면'이라는 답변이 32.8%로 뒤를 이어 부부역할 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응답자 중 32.4%는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잘할 수 없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남성보다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남성주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이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시대가 변화면서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보다 개개인의 능력과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면서 남녀의 성역할파괴가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20-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정보회사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가정살림을 하고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72.9%의 남성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대답하였고 이 중 30대는 67.9%가, 20대는 7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의 가사참여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0년 1월 9일자).

외국에서도 남성주부의 출현이 최근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 성공한 중장년 남성이 이혼 후 보상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재혼하는 '트로피 아내'에 대응하는 용어로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편이 더 뜻 깊다고 판단해 과감히 일을 던져 버리고 주부 역할을 자청하는 '트로피 남편'이 있음을 볼 때(동아일보 2004년 2월 26일) 남성주부의 증가는 일시적이거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5) 탈 가부장적인 새로운 아버지상

변화하는 남성들의 새로운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새로

운 아버지상의 대두로 남성들이 가족과 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현상들로 인해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다. 즉 가족단위 쇼핑객을 위해 또는 아이와 함께 쇼핑하는 아버지를 위한 라운지가 백화점에서 신설된다거나(한겨레, 2005년 8월 9일자), 딸의 아침을 챙겨주는 아버지나 아들의 육아일기를 쓰는 아버지(한겨레, 2005년 9월 6일자), 그리고 육아가 아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에 관한 기사 등이 그 증거이다(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특히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고 싶어 하는 아빠들의 요리교실과(한겨레, 2005년 5월 1일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는 아빠들의 육아교실(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에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고, 또한 (재)서울여성의 자녀양육 지원공간인 '별난 놀이터'의 부모교육 수강생의 절반이 30-40대 아빠들(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이 참여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서의 관심의 증가와 적극적인 참여를 반영해 주고 있다. 이것은 성역할 편견을 깨고 싶어 하고 생계유지자로서 일에 시달리는 남성 가장보다는 가족원으로써 함께 어울리는 아버지 역할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뜻하지 않은 실직으로 1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했던 한 남성도 두 아이 키우기를 전담하면서 '살림'의 중요성과 부당한 성별분업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였음을 제시하였고, 이제 남성들도 "자식이 클 때 무관심한 아빠는 세월이 흐른 뒤 무관심을 되돌려 받게 돼있다"고 평가하였다(한겨레, 2005년 4월 13일자).

이러한 남성들의 아버지역할의 중요성 증가는 극소수의 의견이기는 하나 육아에서 나아가 아내의 산후조리 부담까지도 시어머니나 장모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까지 확산되고 있어(조선일보, 2005년 4월 26일자), 아버지 역할로부터 시작된 남성의 가사노동으로의 이전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갈 가능성이 보인다.

6) 양성성의 추구

양성성 개념은 성역할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분담, 즉 남성은 생계부양자이며 경제적 수단의 책임자로 보고 여성은 자녀 양육과 보호 및 가사일을 전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각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인정하고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성의 도전적이고 과학적 사고와 여성적인 온건함과 섬세함, 그리고 미적 예술적 성향을 동시에 소유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여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러한 개념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30대와 40대 이하의 한국 남성들에게 교육되었다. 따라서 17세-39세 사이의 남녀 300명(남성 150명,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한 '2004년 우리 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일기획의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66.7%, 여성의 57.3%가 '양성형'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한겨레, 2004년 12월 26일자). 즉 남성은 보다 여성적인 섬세함을 갖추고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는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졌고, 여성은 리더십을 갖추고 자의식이 더욱 강해졌으며, 이러한 '남녀의 성 역할 변화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남녀관계보다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관계를 원하고 있으며 28세-39세 사이의 기혼 직장인 남성들은 강인한 남성상 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맞벌이와 가사분담은 기본이며 때로는 남성이 전업 주부가 되거나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주위의 시선을 아직까지는 의식하는 세대라고 보고하였다.

양성성은 한국인 성인 남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80%가 아빠가 집안일을 할 수도 있다고 답할 만큼 양성평등의식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0일자). 이들은 '아빠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80.6%)'로 답하여 가사노동에서 성별분리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직업구분도 없다(68.1%)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나 학교 차원에서 양성평등교육이 환영받고 있음을 볼 때 성별분업에 의한 노동분담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한다.

7)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추구

예전의 가정경제를 떠맡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에 짓눌렸던 모습과는 달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남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미혼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맞벌이를 원하고 아내가 취업했을 경우 대부분의 남성이 가사노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거나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을 생각이 없는 기혼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집안일을 아내와 나눠서 하는 것을 당연시할 뿐 아니라, 피부관리 등 외모 가꾸기에 '투자'하고 아내와 여자친구를 제치고 인터넷 쇼핑몰의 '큰 손'쇼핑족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경제적 부양이 부담스러운 남성일수록 작은 수의 아이를 갖거나 자녀를 원치 않으며 아이를 기르는

것도 심리적 즐거움을 위해서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노후 생활 운영 방안을 이전 세대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한다(동아일보 2002년 10월 31일자).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제일기획의 연구에 의하면(동아일보 2002년 10월 31일자), 평균 34.04세의 대졸 사무직 남성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건강이나 질병(71.4%)이었고, 그 다음이 가족(46.4%)과 재산증식(36.4%)이 그 뒤를 이어 가족이 직장(35.0%)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32.1%)으로 이제 남성들도 직장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일중심의 생활을 해온 1980년대 남성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IMF를 기점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남성들의 근로시간의 변화와 함께 취업 불안정성의 증가, 해고와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의 직장 불안요인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사노동 참여에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의 새로운 노동분배를 유도하는 근로 정책 및 육아 정책의 등장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참여 가능 시간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참여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성성 추구 경향과 새로운 아버지상의 등장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추구는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남성의 가사노동 인식의 변화로 일어난 남성 주부의 등장이나 가사노동 경험의 증가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갈 동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족하고 평등하게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끌어줄 정책과 사회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시장노동의 과도한 부담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양적인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생활에서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질적인 측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가정생활 및 가사노동에서의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새로운 양상들이 신문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의 새로운 이면으로 부정기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정도이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몇 개의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 잦으므로 정확히 양적 데이터로써 그 경향이나 빈도를 수치화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들 신문기사내용들이 인터넷 상에 개방되어 있는 시기도 달라서 연구방법의 통합과 일관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양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함께 남성의 노동시장 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관련성들을 계속 밝혀나가고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들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가사노동 시간을 크게 증가시킨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이 주로 담당하던 가사노동을 남성들이 기꺼이 함께 분담할 때, 여성과 생계부양자 역할을 당당히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부양자 역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와 남성 자신의 복지감이 증가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할분리로 인한 은퇴 후 가족 내에서 남성의 소외 문제는 남성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통해 은퇴 후 생계유지자 역할이 사라졌을 때도 남아있는 표현적 역할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가족 내 소외감, 정체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부간 평등한 노동 분배는 중·장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은퇴 후 노인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부와 사회가 하나가 되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양성적인 역할 수행은 새로운 적응력 높은 인간을 만듦으로써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남성 독신가구, 노인가구의 독립적인 생활가능성과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개발이나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그 정책과 제도들이 남성들의 가사노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남성들을 가사노동으로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남성들이 보다 쉽게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기계와 서비스, 물질의 제공으로 남성들이 보다 쉽게 가사노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가정 내에 남게 되는 노동, 즉 가사노동은 궁극적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거나 여가 및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원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나 즐거움을 위한 최소한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독창적이며 만족감을 주는 생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가정 내 영역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회 환경적

인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융통적인 역할 수용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바뀌어야 하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함께 하는 '우리 가족의 일'로 인식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길들여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지내온 삶의 경험과 굳어진 의식의 변화를 단시간에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가부장제와 성별계층화에 의한 가사노동에서의 성별 분리는 이제 여러 세대를 거쳐 고정된 생활양식으로써 사회적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나만의 인식과 행동변화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편견을 견뎌낼 자신과 용기를 갖춰야 한다. 이때 요즘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양성성 교육과 전체 사회의 양성성 지향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노력과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을 위한 교육, 새로운 노동분담을 통한 사회화 등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5년 11월 15일
□ 심 사 일 : 2005년 1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1월 24일

【참 고 문 헌】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동향(1)-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2.

고기숙 · 이혁구(2004). 중년기 직장 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환경특성 및 자원봉사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 9-41.

기은광 · 이기영(2003).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61-75.

김명자(2003). 퇴직한 남편과 그 부인의 탄력성과 적응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17-128.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양육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1920년대에서 197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53-167.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김진희 · 한경혜(2002). 남성과 여성의 일, 가족 전이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0(11),** 55-70.

김태현 · 김양호(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1997). **중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대한상공회의소.

모선희(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81-119.

문숙재 · 윤소영(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_____(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문숙재 · 차성란 · 정영금 · 정지영(2003).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과 생활정보.** 시그마프레스(주).

박미해(1993). **사회학자들이 본 남성과 여성.** 한울아카데미.

성미애 · 옥선화(2002).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22.

손승영(1997). 경제변화에 따른 조직내 남성의 역할 변화 인식과 갈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중년기 남성이 겪는 갈등과 극복**(제1회 건강가족상수립을 위한 세미나), 1-16.

안정옥(2002). **현대미국에서 시간을 둘러싼 투쟁과 소비적 현대성: 노동, 시간과 일상생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2.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209-217.

윤소영(2003). 주 5일 근무제와 가족자원의 변화-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81-97.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대), 3(1),** 23-32.

조미환(1998).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5-20.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혜정(1983). 성공적인 다역할 수행에서 역할 나누어 갖기로. **여성연구, 1(1),** 68-81.

채 로 ·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

-281.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채옥희(2004). **가사노동과 여성복지.** 서울: 경춘사.

최순남(2000). **현대 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통계청(2005). **2004년 생활시간조사결과.**

현외성 · 조추용 · 이은희 · 윤은경(2001).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홍숙기(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나남출판.

홍은정(1995). **부부의 성역할분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